

화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뜨거운 반응 얻어

학생수 많은 학교 4교 선정, 해당학교 강당에서 총 7회 공연 진행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입장 이해할 수 있도록 춤·노래 선보여

화순교육지원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화순읍의 학생수가 많은 학교 4교를 선정하여 해당학교 강당에서 총 7회에 걸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뮤지컬의 특징을 적극 활용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춤과 노래로 선보였으며 흔히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한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라고 하며, "힘든 친구가 있다면 신고하거나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영래 교육장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며,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단 한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영광 영산성지고,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영산성지고등학교에서는 지난 14일 영산성지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나섰다.

<다 함께! 성지클린데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마을 인근 천변과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거리 곳곳에 쌓여있는 생활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 하

는 등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 보호 및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유치원 입직기 교사 위한 '2023 더 즐거워지는 학급운영 직무연수'

공·사립유치원 초임 교사 대상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은 공·사립유치원 초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나누어 중·서부권 지난 14일, 21일, 동부권 18일, 25일에 '2023. 더 즐거워지는 학급운영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본 연수는 학급 운영과 관계와 소통으로 나

누어 강의, 토의, 실행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치원 놀이 중심 학급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 및 교육공동체와 민주적 관계 형성 및 소통으로 성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 OO는 "동료교사 및 학부모와 소통 및 관계 맺음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했는데, 연수생들과 모둠별 토의를 통해 대화하는 방법, 의사소통 장구 활용 등을 배우고 나니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



해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다가가야겠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순천중앙초, '생태인문감수성 기르기'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소멸되어 가는 전남 살리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가져



지난 14일~15일, 미실란과 제월섬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의 대상으로 '생태-인문감수성 기르기' 현장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곡성, 순천, 광양, 담양, 나주, 장성, 무안, 영광, 장성, 영광, 화순, 목포에서 온 사서교사 13명은 교

육과정 안에서 기후전환 생태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실란이 추구하는 생태교육, 마을공동체, 소멸되어 가는 전남을 살리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7년을 직접 농사짓고 연구하며 지역상생

의 모델, 생태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잡은 미실란, 지금은 전국의 많은 교사들의 생태교육을 받기 위해 이 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미실란의 대표 이동현 박사는 이런 발걸음이 모아지고 흩어져서 현장에서 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렇게 '교육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치를 공유하며 10시간의 현장맞춤형 연수는 뜻깊게 마무리 되었다.

순천중앙초는 2022년 11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태교육의 일환인 미실란을 방문하여, 이동현 박사와 김탁환 작가의 생태와 인문에 관한 강의를 듣는 문학기행을 실시하였고, 2023 학년도에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맞춤형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태환경교육을 특색 교육으로 지정하여 씨앗도서관, 텃밭가꾸기, 생태도서 한권읽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백운초, 신학기 '공감 프로젝트' 운영



광양백운초등학교는 2023년 신학기 상담주간을 맞이하여 4월 3일부터 7일까지 점심시간에 3-6학년들을 대상으로 '공감 프로젝트'를 운

영하였다.

'공감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북극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적어보고, 북극곰 그림이 들어간 나무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보았다. 기후 위기로 인한 동물들의 어려움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도움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5학년 한 학생은 "북극곰아~ 안녕! 너의 잘못이 아니네. 미안해. 내가 앞으로 꼭 노력할게"라고 메시지를 적고 나무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